

名古屋市博物館本『和名類聚抄』의 標題語에 대한 一考察

李 安 九

松 山 大 学
言語文化研究 第31卷第1号 (抜刷)
2011年9月

Matsuyama University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31 No. 1 September 2011

名古屋市博物館本『和名類聚抄』의 標題語에 대한 一考察

李 安 九

1. 序論

『和名類聚抄』는 여러 種類의 諸本이 存在하는데, 크게 十卷本系와 二十卷本系로 나눌 수 있다. 十卷本과 二十卷本の 先後關係에 대해서는 많은 研究者들에 의해 다루어진 바 있으나, 아직 明確한 決論이 내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名古屋市博物館本은 『和名類聚抄』의 諸本 중에서 가장 最近에 발견된 것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 研究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側面이 있다. 名古屋市博物館本の 基本的인 体系는 二十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다른 異本들에 비해 다소 獨特한 樣相을 보인다. 『和名類聚抄』는 標題語에 대해 出典과 함께 本文을 提示하고 그 뒤에 和訓을 적는 것을 基本 構造로 하는데, 名古屋市博物館本의 경우, 出典이나 本文을 提示하지 않고 ‘標題語-和訓’의 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一種의 語彙集과 같은 性格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들을 十卷本, 二十卷本の 標題語들과 比較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章에서는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가 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한 樣相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 記述하고 3장에서는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점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그리고 4장에서는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標題語들과 다소 다른 樣相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2. 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한 樣相을 보이는 경우

名古屋市博物館本은 二十卷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한 樣相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먼저 名古屋市博物館本과 十卷本の 標題語가 一致하면서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形態上 類似性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名古屋市博物館本과 十卷本の 標題語는 一致하나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性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2.1. 十卷本과 一致하며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性을 살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1)에 提示된 例들은 類意 關係를 지니는 二字의 漢字語가 標題語로 提示되어 있는 경우로, 十卷本과 標題語의 形態가 一致한다. 그에 비해 二十卷本에서는 앞부분 혹은 뒷부분의 一字만이 標題語로 提示되었다.

- (1) <樓閣> (㉔ 75ㄴ[卷11] / ㉔ 3-4ㄴ) - <樓> (㉔ 10-4ㄴ)¹
 <簡札> (㉔ 85ㄴ[卷13] / ㉔ 5-26ㄴ) - <簡> (㉔ 13-10ㄴ)
 <寡婦> (㉔ 11ㄴ[卷2] / ㉔ 1-88ㄴ) - <寡> (㉔ 2-6ㄴ)
 <山嶽> (㉔ 8ㄴ[卷1] / ㉔ 1-60ㄴ) - <嶽> (㉔ 1-6ㄴ)
 <寢殿> (㉔ 75ㄴ[卷11] / ㉔ 3-3ㄴ) - <殿> (㉔ 10-2ㄴ)

그리고 (2)는 二十卷本에서 ‘父母’라는 두 字의 標題語로 提示되었던 것이 名古屋市博物館本과 十卷本에서는 各各의 字가 標題語로 設定된 경우이다.

1 名古屋市博物館本の 텍스트로는 名古屋市博物館編 『和名類聚抄』(1992)를 이용하였다. 十卷本으로는 箋注本을, 二十卷本으로는 道円本을 對象으로 하였으며, 텍스트는 모두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 『諸本集成和名類聚抄』(臨川書店, 1968)의 것을 使用하였다. ‘<樓閣>’, ‘<樓>’ 등은 標題語의 形態를 제시한 것이며, ‘㉔ 75ㄴ[卷11]’은 名古屋市博物館本の 75페이지 뒷부분, 卷11에 실려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㉔ 3-4ㄴ’은 十卷本 卷3의 4페이지 뒷부분, ‘㉔ 10-4ㄴ’은 二十卷本 卷10의 4페이지 앞부분에 실려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以下에 제시하는 예들도 이와 같다.

- (2) <父> (名 13ㄱ[卷2]) / 10 1-115ㄴ) + <母> (名 13ㄱ[卷2] / 10 1-116ㄱ)
- <父母> (20 2-14ㄱ)

한편, 다음의 (3)은 名古屋市博物館本과 十卷本에서 ‘-子’라는 接辭가 結合한 形態가 標題語로 提示되었으나 二十卷本の 標題語에서는 ‘-子’가 省略된 形態로 實現되는 경우이다. (4)의 <鷺>와 같은 例는 名古屋市博物館本과 十卷本에서는 意味核을 이루는 一部分만이 標題語로 提示된 데에 비해 二十卷本에서는 上位概念을 나타내는 부분이 標題語에 包含되어 있는 경우이다. 卷2의 <妹>(親戚部 夫妻類)는 <女公>과 같은 訓(‘コシウトメ’)으로 읽히는 경우인데, 二十卷本에서는 ‘女妹’로 實現되었다.

- (3) <林檎子> (名 97ㄱ[卷17] / 10 9-65ㄴ) - <林檎> (20 17-9ㄱ)
(4) <鷺> (名 99ㄴ[卷18] / 10 7-5ㄱ) - <鷺鳥> (20 18-1ㄴ)
<妹>² (名 14ㄱ[卷2] / 10 1-133ㄴ) - <女妹> (20 2-20ㄴ)

2.2. 十卷本과 一致하며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性を 찾기 어려운 경우

다음으로 名古屋市博物館本과 十卷本の 標題語는 一致하는 데에 비해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性を 살피기 어려운 경우를 提示하기로 한다.

- (5) <川> (名 9ㄴ[卷1] / 10 1-50ㄴ) - <河> (20 1-15ㄴ)
(6) <仲父> (名 13ㄱ[卷2] / 10 1-114ㄴ) <觀> (名 75ㄴ[卷11] / 10 3-5ㄱ)
<行宮> (名 75ㄴ[卷11] / 10 3-6ㄱ) <假床> (名 75ㄴ[卷11] / 10 3-6ㄴ)
<窹> (名 75ㄴ[卷11] / 10 3-16ㄱ) <香>³ (名 80ㄴ[卷12] / 10 6-36ㄴ)
<藥> (名 87ㄱ[卷14] / 10 4-32ㄴ)

2 ‘イモウト(여동생)’의 意味를 나타내는 <妹>는 親戚部 兄弟類(名 13ㄱ[卷2] / 10 1-120ㄴ / 20 2-16ㄱ)에 別途의 標題語로 提示되어 있다.

(5)의 예는 名古屋市博物館本과 十卷本の 標題語가 一致하나, 二十卷本에서는 같은 訓으로 읽히는 다른 漢字語가 標題語로 提示된 경우이다. 그리고 (6)의 예들은 名古屋市博物館本과 十卷本에서는 標題語로 提示되었으나 二十卷本에서는 標題語로 設定되지 않았다. 이들은 二十卷本에서 標題語로 實現되지는 않았으나 關聯性을 지니는 標題語의 項目 내에서 함께 다루어지기도 하였는데, 一例로 卷2의 <仲父>와 같은 예는 <伯父>(㉔ 2-15ㄴ)의 項目 내에서 言及된 바 있다.

3.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한 樣相을 보이는 경우

名古屋市博物館本是 二十卷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全般的인 構成上 二十卷本과 類似한 면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는 標題語 設定이라는 側面에서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の 類似性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3.1. 二十卷本과 一致하며 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性을 살필 수 있는 경우

먼저 다음의 (7)의 예들은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の 標題語가 一致하며 標題語를 構成하는 各各의 字가 서로 類意 關係를 이루는 경우로, 十卷本에서는 앞부분의 한 字만이 標題語로 提示되어 있다.

- (7) <奴僕> (㉔ 12ㄴ[卷2] / ㉔ 2-11ㄴ) - <奴> (㉔ 1-108ㄴ)
 <臺榭> (㉔ 75ㄴ[卷11] / ㉔ 10-4ㄴ) - <臺> (㉔ 3-5ㄴ)
 <鏟剗> (㉔ 92ㄴ[卷15] / ㉔ 15-16ㄴ) - <鏟> (㉔ 5-95ㄴ)

그리고 다음의 (8)은 意味上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는 두 漢字語가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에서는 各各 別途의 標題語로 設定되었으나 十卷本에서는

3 調度部 香名[十卷本은 薰香具]의 예를 提示한 것이다.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 <香>은 調度部 香藥具(㉔ 87ㄴ[卷14])에서도 나타난다.

하나의 標題語로 提示된 경우이다.

- (8) <後妻> (名 14ㄱ[卷2] / 20 2-21ㄱ) + <前妻> (名 14ㄱ[卷2] / 20 2-21ㄱ)
- <前後妻> (10 1-135ㄱ)
<婦兄> (名 14ㄱ[卷2] / 20 2-21ㄱ) + <婦弟> (名 14ㄱ[卷2] / 20 2-21ㄱ)
- <婦兄弟> (10 1-135ㄱ)
<肌> (名 16ㄱ[卷3] / 20 3-10ㄱ) + <膚> (名 16ㄱ[卷3] / 20 3-10ㄱ)
- <肌膚> (10 2-33ㄱ)

한편, (9)는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에서는 ‘-子’라는 接辭가 結合한 形態가 標題語로 實現되었으나 十卷本에서는 意味核을 이루는 部分만이 標題語로 提示된 경우이다. 그에 비해 (10)은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에서는 意味核을 이루는 部分만이 標題語로 實現되고 十卷本에서는 ‘-子’, ‘-魚’가 結合한 形態가 標題語로 設定되었다.

- (9) <樛子> (名 89ㄱ[卷14] / 20 14-19ㄱ) - <樛> (10 6-73ㄱ)
<鑢子> (名 92ㄱ[卷15] / 20 15-16ㄱ) - <鑢> (10 5-96ㄱ)
(10) <男> (名 11ㄱ[卷2] / 20 2-5ㄱ) - <男子> (10 1-82ㄱ)
<鯉> (名 102ㄱ[卷19] / 20 19-6ㄱ) - <鯉魚> (10 8-21ㄱ)

다음으로는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の 標題語는 一致하나 十卷本에 대해서는 形態上 一部分만 類似性을 보이는 경우를 提示해 둔다.

- (11) <市郭兒> (名 12ㄱ[卷2] / 20 2-9ㄱ) - <市人> (10 1-104ㄱ)
<商人> (名 12ㄱ[卷2] / 20 2-9ㄱ) - <商賈> (10 1-105ㄱ)
<鳳蝶> (名 104ㄱ[卷19] / 20 19-23ㄱ) - <鳳車> (10 8-81ㄱ)

위의 예 중 卷2의 <市郭兒>와 <商人>은 대응하는 十卷本の 標題語인 <市

人>과 <商賈>의 漢文注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3.2. 二十卷本과 一致하며 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性を 찾기 어려운 경우

여기에서는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가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一致하나, 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性を 찾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記述하기로 한다.

다음의 (12)는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에서 提示된 標題語와 同一한 訓으로 읽히는 다른 漢字語가 十卷本の 標題語로 實現된 경우를 提示한 것이다.

- | | |
|--------------------------------|--------------------------------|
| (12) <鬼> (名 11ㄴ[卷2] / 20 2-4ㄴ) | - <人神> (10 1-32ㄴ) |
| <舟子> (名 12ㄴ[卷2] / 20 2-11ㄴ) | - <水手> (10 1-103ㄴ) |
| <楫師> (名 12ㄴ[卷2] / 20 2-11ㄴ) | - <挾抄> (10 1-104ㄴ) |
| <涉人> (名 12ㄴ[卷2] / 20 2-11ㄴ) | - <渡子> (10 1-103ㄴ) |
| <簫> (名 20ㄴ[卷4] / 20 4-13ㄴ) | - <高麗笛> (10 6-9ㄴ) |
| <甗> (名 93ㄴ[卷16] / 20 16-7ㄴ) | - <大甗> (10 4-88ㄴ) |
| <甗> (名 93ㄴ[卷16] / 20 16-7ㄴ) | - <淺甗> (10 4-88ㄴ) |
| <山芋> (名 97ㄴ[卷17] / 20 17-14ㄴ) | - <薯蕷> (10 9-81ㄴ) |
| <獸産> (名 101ㄴ[卷18] / 20 18-15ㄴ) | - <生益> (10 7-76ㄴ) |
| <蓬> (名 106ㄴ[卷20] / 20 20-13ㄴ) | - <艾> ⁴ (10 10-55ㄴ) |

위의 예들 중에는 同一한 訓으로 읽히는 다른 漢字語 標題語에 대한 漢文注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一例로 卷17의 <山芋>는 十卷本에서 <薯蕷>라는 標題語로 實現되는데, 그 漢文注를 살펴보면 ‘本草云, 薯蕷一名山芋’라

4 여기에서 <艾>는 ‘ヨモギ’라는 和訓으로 읽히는 경우이다. <艾>는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도 標題語로 設定되어 있는데, 十卷本이나 二十卷本에서는 部門名으로 提示된 바 없는 調度部 香藥具(圖 87ㄴ[卷14])에 나타나며 ‘ヤイクサ’라는 和訓이 提示되었다.

고 記述되어 있어 <山芋>와 <薯蕷>가 同一한 對象을 가리키는 異名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 그리고 卷16의 <甌>의 경우에는 ‘本朝式云, 甌’, ‘辨色立成云, 大甌’과 같이 別途의 出典을 통해 各各의 形態를 提示하였는데, 十卷本에서는 <大甌>으로 標題語가 交替되면서 出典의 提示 順序도 逆轉되었다. 이와 같은 樣相을 보이는 예로 卷12의 <舟子>, <檝師>, <涉人>, 卷16의 <醒>, 卷20의 <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다음의 (13)은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에서는 標題語로 設定되었으나 十卷本에서는 標題語로 實現되지 않은 경우이다.

- (13) <潦> (名 8ㄴ[卷1] / 20 1-4ㄴ)
 <沫雨> (名 8ㄴ[卷1] / 20 1-4ㄴ)
 <[靄]>⁵ (名 8ㄴ[卷1] / 20 1-6ㄴ)
 <魴魴>⁶ (名 11ㄴ[卷2] / 20 2-5ㄴ)
 <裨販>⁷ (名 12ㄴ[卷2] / 20 2-9ㄴ)
 <胲>⁸ (名 14ㄴ[卷3] / 20 3-2ㄴ)
 <皴>⁹ (名 16ㄴ[卷3] / 20 3-10ㄴ)
 <煎藥> (名 81ㄴ[卷12] / 20 12-10ㄴ)
 <窪>¹⁰ (名 95ㄴ[卷16] / 20 16-22ㄴ)
 <生薑>¹¹ (名 95ㄴ[卷16] / 20 16-22ㄴ)
 <乾薑> (名 95ㄴ[卷16] / 20 16-22ㄴ)
 <糠>¹² (名 96ㄴ[卷17] / 20 17-2ㄴ)

5 <靄> (20 1-27ㄴ)의 項目 내에서 別途의 出典을 提示하여 記述한 바 있다.

6 <水神> (20 1-43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7 <商賈> (20 1-105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8 <頰> (20 2-4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9 <皮> (20 2-33ㄴ)의 項目 내에서 別途의 出典을 提示하여 記述한 바 있다.

10 <鹽梅類> (20 4-64ㄴ)라는 部類名에 대한 割註에서 言及된 바 있다.

11 <生薑>과 다음에 이어지는 <乾薑>은 <薑> (20 4-67ㄴ)의 項目에서 言及되었던 것들이다.

12 <稻> (20 9-1ㄴ)의 項目 내에서 言及된 바 있다.

- <麥>¹³ (名 96ㄴ[卷17] / 20 17-3ㄴ)
 <葦菜>¹⁴ (名 98ㄴ[卷17] / 20 17-15ㄴ)
 <滑海藻>¹⁵ (名 98ㄴ[卷17] / 20 17-17ㄴ)
 <鷓子>¹⁶ (名 99ㄴ[卷18] / 20 18-4ㄴ)
 <雀鷄>¹⁷ (名 99ㄴ[卷18] / 20 18-4ㄴ)
 <畜>¹⁸ (名 101ㄴ[卷18] / 20 18-15ㄴ)
 <牝> (名 101ㄴ[卷18] / 20 18-15ㄴ)
 <牡> (名 101ㄴ[卷18] / 20 18-15ㄴ)

이들 중에는 十卷本에서 關聯되는 標題語의 項目 내에 言及되는 경우가 많다. 一例로 卷1에 提示된 <潦>와 <沫雨>는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에서는 標題語로 設定되었으나 十卷本에서는 <霤> (110 1-26ㄴ)의 項目 내에서 別途의 出典을 提示하여 關聯事項으로 함께 記述되었다.¹⁹

4.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다른 樣相을 보이는 경우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들은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一致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存在한다. 그 중에서 먼저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標題語

- 13 十卷本에서는 <大麥> (110 9-5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졌는데,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에서는 <麥>의 項目 다음에 <大麥>을 別途의 標題語로 設定하였다.
 14 <蒜> (110 9-22ㄴ)의 項目 내에서 言及된 바 있다.
 15 十卷本에서는 <海藻> (110 9-28ㄴ)의 項目 내에서 함께 다루어졌는데,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에서는 <海藻>의 項目 다음에 別途로 <滑海藻>를 標題語로 設定하였다.
 16 十卷本에서는 <鷓鴣> (110 7-7ㄴ)의 項目 내에서 記述된 바 있다.
 17 十卷本에서는 <雀鷄> (110 7-8ㄴ)의 項目 내에서 別途의 出典을 提示하여 記述하였다.
 18 <畜>, 그리고 이어지는 <牝>, <牡>는 모두 <獸> (110 7-51ㄴ)의 項目 내에서 言及되었던 것들인데,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卷本에서는 各各 別個의 標題語로 設定되었다.
 19 參考로 <潦>와 <沫雨>가 記述되어 있는 <霤> (110 1-26ㄴ)의 項目을 提示해 둔다.

<霤> 說文云, 霤[音與溜同, 和名阿末之太利], 屋簷前雨水流下也.
 [潦等附] 唐韻云, 潦[音老, 和名尔波太豆美], 雨水也.
 淮南子注云, 沫雨[和名字太加太], 雨潦上沫起若覆盆也.

와 形態上 類似性을 살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 보고, 다음으로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性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言及하기로 한다.

4.1.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類似性을 살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14)에서 提示된 例들은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를 이루는 각 構成要素가 類意 關係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그 중 一部分만이 標題語로 提示된 바 있다.

- (14) <牖窓> (名 76ㄴ [卷11]) - <牖> (10 3-39ㄴ / 20 10-14ㄴ)
 <幡旌旗> (名 85ㄴ [卷13]) - <幡> (10 5-33ㄴ / 20 13-12ㄴ)
 <甲鎧> (名 85ㄴ [卷13]) - <甲> (10 5-34ㄴ / 20 13-12ㄴ)
 <箭矢> (名 85ㄴ [卷13]) - <箭> (10 5-37ㄴ / 20 13-14ㄴ)
 <莖莖> (名 108ㄴ [卷20]) - <莖> (10 10-118ㄴ / 20 20-32ㄴ)
 <駕輦>²⁰ (名 78ㄴ [卷11]) - <輦> (10 3-68ㄴ / 20 11-5ㄴ)

그에 비해 (15)의 例들은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類意 關係를 지니는 2字의 漢字語가 標題語로 提示되었던 것이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그 중 1字만이 標題語로 實現된 경우이다.

- (15) <坂> (名 8ㄴ [卷1]) - <坂嶺> (10 1-63ㄴ / 20 1-7ㄴ)
 <谿> (名 8ㄴ [卷1]) - <谿谷> (10 1-55ㄴ / 20 1-8ㄴ)
 <陂> (名 9ㄴ [卷1]) - <陂隄> (10 1-49ㄴ / 20 1-16ㄴ)

20 十卷本, 二十卷本에서 <輦>로 標題語가 實現된 것과는 달리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 <駕輦>로 標題語가 設定된 것은 바로 앞의 標題語인 <車>가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 <車駕>로 提示되었다는 점과 關聯하여 생각해 볼 可能性도 있을 듯하다. 한편, 앞에 提示한 卷 13의 <幡旌旗>의 경우에는 十卷本이나 二十卷本에서 ‘考工記云, 幡, 旌旗之總名也’와 같은 本文을 지닌다는 점을 考慮할 때,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는 誤謬인 것으로 解釋해 볼 餘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涯> (名 9ㄴ [卷1]) - <涯岸> (10 1-56ㄴ / 20 1-17ㄴ)
 <園> (名 10ㄴ [卷1]) - <園圃> (10 1-79ㄴ / 20 1-13ㄴ)
 <塵> (名 10ㄴ [卷1]) - <塵埃> (10 1-60ㄴ / 20 1-13ㄴ)
 <糞> (名 10ㄴ [卷1]) - <糞堆> (10 1-60ㄴ / 20 1-13ㄴ)
 <魔> (名 11ㄴ [卷2]) - <魔鬼> (10 1-42ㄴ / 20 x)
 <賓> (名 12ㄴ [卷2]) - <賓客> (10 1-96ㄴ / 20 x)
 <顔> (名 14ㄴ [卷3]) - <顔面> (10 2-3ㄴ / 20 3-2ㄴ)
 <胸> (名 15ㄴ [卷3]) - <胸臆> (10 2-26ㄴ / 20 3-8ㄴ)
 <車> (名 78ㄴ [卷11]) - <車駕> (10 3-68ㄴ / 20 11-5ㄴ)
 <鬚> (名 15ㄴ [卷3]) - <髭鬚> (10 2-22ㄴ / 20 3-7ㄴ)
 <竅> (名 16ㄴ [卷3]) - <孔竅> (10 2-33ㄴ / 20 3-10ㄴ)
 <蕨> (名 99ㄴ [卷17]) - <薇蕨> (10 9-49ㄴ / 20 17-23ㄴ)

한편, (16)의 예들은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하나의 標題語로 提示되었던 것이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두 개의 標題語로 나뉘어 實現된 것들이다. 이들은 서로 類意 關係나 反意 關係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6) <繼父> (名 13ㄴ [卷2]) + <繼母> (名 13ㄴ [卷2])
 - <繼父母> (10 1-117ㄴ / 20 2-14ㄴ)
 <婚> (名 13ㄴ [卷2]) + <姻> (名 13ㄴ [卷2])
 - <婚姻> (10 1-129ㄴ / 20 2-18ㄴ)
 <首> (名 14ㄴ [卷3]) + <頭> (名 14ㄴ [卷3])
 - <首頭> (10 2-1ㄴ / 20 3-1ㄴ)
 <鬢> (名 15ㄴ [卷3]) + <髮> (名 15ㄴ [卷3])
 - <鬢髮> (10 2-18ㄴ / 20 3-6ㄴ)
 <筋> (名 15ㄴ [卷3]) + <力> (名 15ㄴ [卷3])
 - <筋力> (10 2-31ㄴ / 20 3-9ㄴ)

- <表> (㉔ 83ㄴ[卷12]) + <裏> (㉔ 83ㄴ[卷12])
 - <表裏> (㉔ 4-18ㄴ / ㉔ 12-23ㄴ)
 <烏頭>²¹ (㉔ 106ㄴ[卷20]) + <附子> (㉔ 106ㄴ[卷20])
 - <烏頭附子> (㉔ 10-72ㄴ / ㉔ 20-16ㄴ)

다음으로는 十卷本이나 二十卷本에서는 意味核을 이루는 부분만이 標題語로 實現되었으나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修飾語 등이 結合한 形態가 標題語로 設定된 경우를 提示해 둔다.

- (17) <真珠> (㉔ 80ㄴ[卷11]) - <珠> (㉔ 3-84ㄴ / ㉔ 11-18ㄴ)
 <阿膠> (㉔ 92ㄴ[卷15]) - <膠> (㉔ 5-89ㄴ / ㉔ 15-14ㄴ)

그에 비해 (18)과 (19)는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 提示된 標題語의 一部分이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로 實現된 경우이다.

- (18) <天探> (㉔ 11ㄴ[卷2]) - <天探女> (㉔ 1-45ㄴ / ㉔ 2-5ㄴ)
 <客作> (㉔ 12ㄴ[卷2]) - <客作兒> (㉔ 1-108ㄴ / ㉔ 2-9ㄴ)
 <拍> (㉔ 19ㄴ[卷4]) - <拍子> (㉔ 6-15ㄴ / ㉔ 4-10ㄴ)
 <鑊> (㉔ 92ㄴ[卷16]) - <鑊子> (㉔ 4-74ㄴ / ㉔ 16-2ㄴ)
 <菴蘆> (㉔ 106ㄴ[卷20]) - <菴蘆子> (㉔ 10-48ㄴ / ㉔ 20-11ㄴ)
 <驛> (㉔ 79ㄴ[卷11]) - <驛馬> (㉔ 7-79ㄴ / ㉔ 11-10ㄴ)
 <鮎> (㉔ 102ㄴ[卷19]) - <鮎魚> (㉔ 8-30ㄴ / ㉔ 19-9ㄴ)
 <三稜> (㉔ 106ㄴ[卷20]) - <三稜草> (㉔ 10-71ㄴ / ㉔ 20-16ㄴ)
 <莎> (㉔ 106ㄴ[卷20]) - <莎草> (㉔ 10-71ㄴ / ㉔ 20-16ㄴ)

21 草木部 草類의 例로 和訓은 提示되지 않았다. 이밖에 牛馬部 牛馬躰[十卷本과 二十卷本은 牛馬具](㉔ 79ㄴ[卷11] / ㉔ 7-88ㄴ / ㉔ 11-14ㄴ)에서도 標題語로 提示된 바 있으며 ‘クハユキ’라는 和訓이 提示되었다.

<茵陳> (図 106ㄱ [卷20]) - <茵陳蒿> (図 10-56ㄱ / 20 20-13ㄱ)

<霖> (图 8ㄱ [卷1]) - <霖雨> (图 1-27ㄱ / 20 1-4ㄱ)

<鷹> (图 101ㄱ [卷18]) - <鷹羊> (图 7-60ㄱ / 20 18-18ㄱ)

<絛>²² (图 88ㄱ [卷14]) - <絛絲> (图 6-60ㄱ / 20 14-14ㄱ)

<媒>²³ (图 90ㄱ [卷15]) - <媒鳥> (图 5-67ㄱ / 20 15-7ㄱ)

<橘>²⁴ (图 95ㄱ [卷16]) - <橘皮> (图 4-72ㄱ / 20 16-23ㄱ)

(19) <神> (图 11ㄱ [卷2]) - <天神> (图 1-31ㄱ / 20 2-1ㄱ)

<角>²⁵ (图 79ㄱ [卷11]) - <牛角> (图 7-86ㄱ / 20 11-13ㄱ)

<埒>²⁶ (图 18ㄱ [卷4]) - <馬埒> (图 2-91ㄱ / 20 4-3ㄱ)

<薄>²⁷ (图 80ㄱ [卷11]) - <金銀薄> (图 5-91ㄱ / 20 15-15ㄱ)

<屑>²⁸ (图 80ㄱ [卷11]) - <金屑> (图 3-79ㄱ / 20 11-16ㄱ)

-
- 22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シケイト’라는 和訓이 提示되었으나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和訓이 提示되지 않았다.
- 23 <媒> (調度部 咬獵具類)의 例는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媒鳥>라는 標題語로 提示되었는데, ‘ヲトリ’라는 和訓은 同一하게 提示되었다.
- 24 <橘> (飲食部 薑蒜類)의 경우는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橘皮>라는 標題語로 提示되었던 것으로, ‘橘’이 意味核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편의상 함께 提示하였다. 和訓을 살펴보면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タチハナ’로 提示되었으나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タチハナノカハ’로 提示되었다. <橘>(タチハナ)은 果蓏部 菓類(图 97ㄱ [卷17] / 图 9-69ㄱ / 20 17-10ㄱ)에서도 標題語로 提示된 바 있다.
- 25 <角>의 경우,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ツノ’라는 和訓을 提示하였으나, 十卷本과 二十卷本の 해당 부분에서는 <牛角>이라는 標題語에 대해 ‘コツノ’의 和訓을 提示하고 있다. 한편, <角>은 卷18(101ㄱ)의 毛群部 毛群体에서도 ‘ツノ’라는 和訓과 함께 標題語로 提示된 바 있는데, 十卷本(5-43ㄱ)과 二十卷本(13-15ㄱ) 역시 같은 樣相을 보인다. 또한 卷 13(86ㄱ)의 調度部 征戰具에도 標題語로 設定되어 있는데, 十卷本(5-43ㄱ)이나 二十卷本(13-15ㄱ)에서는 和訓(‘はらのふえ(大角)’, ‘くたのふえ(小角)’)이 提示된 것에 비해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和訓이 提示되지 않았다.
- 26 名古屋市博物館本の 경우, 卷4의 術藝部 射芸具에서 <埒>로 提示된 것 이외에 卷15의 調度部 鞍馬具에서도 <馬埒>가 標題語로 提示되었는데, 十卷本과 二十卷本の 해당 부분(調度部 鞍馬具)에는 그러한 標題語가 존재하지 않는다.
- 27 名古屋市博物館本 宝部 金類에 提示된 것으로 十卷本(寶貨部 金銀類)이나 二十卷本(珍宝部 金銀類)에서는 <金銀薄>이라는 標題語로 實現되었다. 十卷本이나 二十卷本에서는 和訓이 提示되지 않았으며,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그 音を 나타내는 ‘ハク’가 諺으로 提示되어 있다. 한편, <金銀薄>이라는 標題語는 調度部 膠漆具에서도 나타난다.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ハナススキ(花薄)’라는 和訓이 提示되어 있으며,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스스키’의 和訓을 提示하고 있다.

(18)은 ‘-女, -兒, -子, -馬, -魚, -草’ 등 上位語에 該當하는 接辭 부분은 省略되고 意味核이라 할 수 있는 앞부분만 標題語로 設定된 경우로, 대부분 上位語가 省略된 意味核 부분만으로도 表象하는 바는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卷14의 <絰>와 같은 예는 그 自體로 ‘명주’라는 意味를 지니나, 調度部 蠶絲具 안에 提示된 까닭에 ‘-絲(실)’라는 부분이 省略될 수 있었던 듯하다. 반면, (19)는 意味核이라 할 수 있는 뒷부분이 標題語로 提示된 경우이다. <牛角>과 같은 標題語가 <角>으로 實現될 수 있는 것은 ‘牛馬躰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牛馬具]’라는 部類 속에 提示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十卷本과 二十卷本, 그리고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른 形態로 實現되는 경우도 있다.²⁹

- (20) <泊泊> (圖 9ㄴ[卷1]) - <泊泊> (圖 1-45ㄴ / 圖 1-14ㄴ)
 <粉經> (圖 87ㄴ[卷14]) - <經粉> (圖 6-27ㄴ / 圖 14-5ㄴ)
 <櫨黃> (圖 88ㄴ[卷14]) - <黃櫨> (圖 6-48ㄴ / 圖 14-10ㄴ)

- (21) <築垣> (圖 76ㄴ[卷11]) - <築牆> (圖 3-35ㄴ / 圖 10-12ㄴ)
 <旋毛> (圖 79ㄴ[卷11]) - <廻毛> (圖 7-87ㄴ / 圖 11-13ㄴ)
 <水晶> (圖 80ㄴ[卷11]) - <水精> (圖 3-85ㄴ / 圖 11-18ㄴ)

28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金屑>이라는 標題語가 實現되고 ‘コカネノスリクツ’라는 和訓이 提示되었으나,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屑>이라는 標題語에 대해 ‘スリクツ’라는 和訓이 提示되었다.

29 다음에 提示하는 (1)의 예들과 같이 異體字가 쓰이거나 部首字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誤字로 생각되는 예들도 눈에 띈다. (2)의 예는 草木部 草類에서 提示된 것으로 ‘芄蘭’이라는 蘭의 種類를 뜻하는데,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는 ‘풀이 茂盛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芄’字가 쓰이고 있다. ‘芄’과 ‘芄’의 字形의 類似性으로 인한 誤字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1) <白塩>/<黒塩> (圖 95ㄴ[卷16]) - <鹽> (圖 4-64ㄴ) - <白鹽>/<黒鹽> (圖 16-21ㄴ)
 <塩> (圖 78ㄴ[卷11]) - <施> (圖 3-65ㄴ / 圖 11-4ㄴ)
 <昌蒲> (圖 106ㄴ[卷20]) - <昌蒲> (圖 10-68ㄴ / 圖 20-16ㄴ)
 (2) <芄蘭> (圖 106ㄴ[卷20]) - <芄蘭> (圖 10-57ㄴ / 圖 20-13ㄴ)

<玉串> (名 85ㄴ [卷13]) - <玉籤> (10 5-17ㄴ / 20 x)

<傘蓋> (名 86ㄴ [卷14]) - <華蓋> (10 6-20ㄴ / 20 14-2ㄴ)

<蠻即> (名 104ㄴ [卷19]) - <蠻子> (10 8-99ㄴ / 20 19-28ㄴ)

<白頭草> (名 105ㄴ [卷20]) - <白頭公> (10 10-32ㄴ / 20 20-7ㄴ)

<赭鬼> (名 106ㄴ [卷20]) - <赭魁> (10 10-46ㄴ / 20 20-11ㄴ)

(22) <海嶋> (名 9ㄴ [卷1]) - <嶋嶼> (10 1-63ㄴ) - <島嶼> (20 1-7ㄴ)

<祇> (名 11ㄴ [卷2]) - <地神> (10 1-31ㄴ) - <地祇> (20 2-1ㄴ)

<雄雌> (名 99ㄴ [卷18]) - <鳥> (10 7-1ㄴ) - <雌雄> (20 18-1ㄴ)

(20)에서 提示된 例들은 十卷本이나 二十卷本과 比較해 볼때, 二字로 이루어진 標題語의 順序가 逆轉된 경우이다. (21)의 例들은 標題語의 일부가 다른 形態로 代置된 경우로, 卷11의 <築垣>이나 <旋毛>와 같은 예는 ‘垣’과 ‘牆’, 그리고 ‘旋’과 ‘廻’의 意味上的 類似性에 기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水晶>과 <水精>은 音韻의 類似性에 기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22)에서는 名古屋市博物館本과 十卷本, 二十卷本の 標題語가 各各 조금씩 다른 樣相으로 實現된 경우를 提示하였다. 이 중 卷18의 <雄雌>는 二十卷本에서 그 順序가 逆轉된 形態로 實現되었으나 十卷本에서는 標題語로 設定되지 않고 <鳥>의 項目 내에서 함께 다루어졌다.

4.2.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形態上 類似性을 살피기 어려운 경우

이제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 중에서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形態上 類似性을 살피기 어려운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먼저 다음의 (23)은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 提示된 標題語와 같은 訓으로 읽히는 다른 漢字語가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標題語로 實現된 경우를 提示한 것이다.

- (23) <黄色石> (名 9ㄱ[卷1]) - <方解石> (10 1-71ㄱ / 20 1-10ㄱ)
 <鼯> (名 16ㄴ[卷3]) - <塞鼻> (10 2-52ㄴ / 20 3-18ㄴ)
 <鐵> (名 80ㄴ[卷11]) - <錫> (10 3-82ㄴ / 20 11-17ㄴ)
 <炷> (名 81ㄴ[卷12]) - <燈心> (10 4-102ㄴ / 20 12-12ㄴ)
 <褰> (名 86ㄴ[卷13]) - <弓袋> (10 5-44ㄴ / 20 13-16ㄴ)
 <櫛> (名 108ㄴ[卷20]) - <松脂> (10 10-121ㄴ / 20 20-33ㄴ)

이들 중 <鼯>, <炷>, <褰>과 같은 경우는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 各各 <塞鼻>, <燈心>, <弓袋>에 대한 漢文注 부분에 言及되기도 하였다.

한편, 다음의 (24)에 提示된 例들은 十卷本이나 二十卷本과는 달리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 새로이 標題語로 設定된 경우이다.

- | | |
|------------------------------------|--------------------------------|
| (24) <雨氷> ³⁰ (名 8ㄴ[卷1]) | <漣> ³¹ (名 9ㄱ[卷1]) |
| <電> ³² (名 11ㄱ[卷2]) | <塗工> (名 12ㄱ[卷2]) |
| <後子> (名 13ㄴ[卷2]) | <流鎬馬> (名 18ㄴ[卷4]) |
| <弓> (名 18ㄴ[卷4]) | <弩> (名 18ㄴ[卷4]) |
| <角弓> (名 18ㄴ[卷4]) | <彈弓> (名 18ㄴ[卷4]) |
| <征箭> (名 18ㄴ[卷4]) | <鳴箭> (名 18ㄴ[卷4]) |
| <平題> ³³ (名 18ㄴ[卷4]) | <箴> (名 18ㄴ[卷4]) |
| <靱> ³⁴ (名 18ㄴ[卷4]) | <山形> ³⁵ (名 19ㄱ[卷4]) |

30 '雨氷'라는 形態와 'ヒフル'라는 和訓 모두 <霈> (10 1-25ㄱ / 20 1-4ㄱ)의 項目 내에 나타난 바 있다.

31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같은 訓으로 읽히는 <水波> (10 1-45ㄱ / 20 1-14ㄱ)가 標題語로 提示되었다.

32 <雷公> (10 1-35ㄱ / 20 2-2ㄱ)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33 調度部 征戰具(名 85ㄴ[卷13] / 10 5-38ㄴ / 20 13-14ㄱ)에서는 <平題箭>라는 標題語로 實現된 바 있다.

34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는 <靱> (10 5-36ㄴ / 20 13-13ㄴ)로 實現되었다.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 <靱>으로 提示된 것은 意味의 側面을 고려할 때 誤字일 可能性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35 <皮> (10 2-93ㄱ / 20 4-3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柱> ³⁶ (名 19ㄴ [卷4])	<瑟琴> (名 19ㄴ [卷4])
<砌> ³⁷ (名 76ㄴ [卷11])	<堊> ³⁸ (名 76ㄴ [卷11])
<闇> (名 77ㄴ [卷11])	<洽> ³⁹ (名 78ㄴ [卷11])
<輶> ⁴⁰ (名 78ㄴ [卷11])	<犢> ⁴¹ (名 78ㄴ [卷11])
<牝馬> ⁴² (名 79ㄴ [卷11])	<駒> (名 79ㄴ [卷11])
<馱> ⁴³ (名 79ㄴ [卷11])	<髦> ⁴⁴ (名 79ㄴ [卷11])
<痲癆> (名 79ㄴ [卷11])	<腹結> (名 79ㄴ [卷11])
<鑛> (名 80ㄴ [卷11])	<珠玉> (名 80ㄴ [卷11])
<如意珠> ⁴⁵ (名 80ㄴ [卷11])	<摩尼> (名 80ㄴ [卷11])
<爍> ⁴⁶ (名 81ㄴ [卷12])	<柴> (名 81ㄴ [卷12])
<花瓶> (名 84ㄴ [卷13])	<礼版座> (名 84ㄴ [卷13])
<鈴> ⁴⁷ (名 84ㄴ [卷13])	<銃> ⁴⁸ (名 84ㄴ [卷13])

36 <箏> (㉑ 6-4ㄴ / ㉒ 4-11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37 <堊> (㉑ 3-34ㄴ / ㉒ 10-12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38 居處部 牆壁具의 例이며 和訓은 提示되지 않았다. 地部 塵土類(㉑ 10ㄴ[卷1] / ㉒ 1-59ㄴ / ㉓ 1-13ㄴ)에서도 標題語로 實現되고 있는데, 'シラツチ'라는 和訓이 기재되어 있다. 居處部 牆壁具에서 <堊>이 標題語로 提示된 것은 바로 앞 項目인 <白土>와 關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白土>의 本文에서 <堊>은 그 一名으로 提示되어 있다.

39 <屨> (㉑ 3-67ㄴ / ㉒ 11-5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40 <輪> (㉑ 3-74ㄴ / ㉒ 11-7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41 <牛> (㉑ 7-77ㄴ / ㉒ 11-9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42 <牝馬>와 그에 이어지는 項目인 <駒>는 <馬> (㉑ 7-78ㄴ / ㉒ 11-9ㄴ)의 項目 내에서 言及된 바 있다.

43 <駑馬> (㉑ 7-79ㄴ / ㉒ 11-10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44 <蟹> (㉑ 7-86ㄴ / ㉒ 11-13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45 <如意>는 調度部 僧坊具(㉑ 84ㄴ [卷13] / ㉒ 5-9ㄴ / ㉓ 13-4ㄴ)에서 표제어로 실현된 바 있다.

46 <野火> (㉑ 4-99ㄴ / ㉒ 12-11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47 調度部 僧坊具의 例이며 '레이'라는 訓이 달려 있다. 調度部 服玩具(㉑ 86ㄴ[卷14] / ㉒ 6-19ㄴ / ㉓ 14-2ㄴ)에서도 標題語로 나타나는데 '스스'라는 和訓이 提示되어 있다.

48 <銃>은 調度部 僧坊具에서 提示되었는데, 이에 대한 和訓('カナマリ')은 卷 16(器皿部 金器)의 <金椀> (㉑ 92ㄴ / ㉒ 16-3ㄴ)-<銃> (㉑ 4-76ㄴ)에 대한 和訓으로도 쓰이고 있다.

<横首杖> ⁴⁹ (圖 84ㄴ [卷13])	<鐵杖> (圖 84ㄴ [卷13])
<旒> ⁵⁰ (圖 85ㄴ [卷13])	<簪> ⁵¹ (圖 85ㄴ [卷13])
<鏃> (圖 85ㄴ [卷13])	<筈> (圖 85ㄴ [卷13])
<横刀> (圖 85ㄴ [卷13])	<天鼠矢> ⁵² (圖 86ㄴ [卷13])
<劔室> (圖 86ㄴ [卷13])	<劔莖> ⁵³ (圖 86ㄴ [卷13])
<香> ⁵⁴ (圖 87ㄴ [卷14])	<燭> (圖 87ㄴ [卷14])
<鏐> (圖 87ㄴ [卷14])	<砭> (圖 87ㄴ [卷14])
<馬埵> ⁵⁵ (圖 90ㄴ [卷15])	<繳> ⁵⁶ (圖 90ㄴ [卷15])
<射翳> ⁵⁷ (圖 90ㄴ [卷15])	<鐏> (圖 91ㄴ [卷15])
<金剛砂> (圖 91ㄴ [卷15])	<漆屋> ⁵⁸ (圖 92ㄴ [卷15])

- 49 調度部 僧坊具의 例이며 ‘カセツエ’라는 和訓이 달려 있다. 行旅具(圖 89ㄴ[卷14] / 圖 6-76ㄴ / 圖 14-20ㄴ)에서도 標題語로 提示된 바 있으며, 和訓은 ‘カセツヘ’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 다음에 提示된 <鐵杖> 역시 僧坊具의 例이며(‘カナツエ’) 行旅具(圖 89ㄴ[卷14] / 圖 6-76ㄴ / 圖 14-20ㄴ)에서도 標題語로 設定되었다(‘カナツヘ’).
- 50 <幡> (圖 5-33ㄴ / 圖 13-12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 51 <簪>과 그에 이어지는 <鏃>, <筈>은 모두 <箭> (圖 5-37ㄴ / 圖 13-14ㄴ)의 項目 내에서 言及된 바 있다.
- 52 <蝙蝠> (圖 8-58ㄴ / 圖 19-18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 53 <櫛> (圖 5-44ㄴ / 圖 13-16ㄴ)의 項目 내에서 言及된 바 있다.
- 54 調度部 香藥具의 例이다. 調度部 香名[十卷本은 薰香具](圖 80ㄴ[卷12] / 圖 6-36ㄴ)에서도 標題語로 提示된 바 있는데, 두 경우 모두 和訓은 提示되지 않았다. 한편, 榎英一(1992)에서는 香藥具 部分(87ㄴ)이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만 나타나며 배열상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調度部의 厨膳具(87ㄴ)와 裁縫具(88ㄴ)에 연속으로 提示된 <油單>은 意味上 厨膳具에 包含되며 87 丁의 끝부분이 裁縫具라는 部類名 다음에 한 줄의 空白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옹지 1장이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言及한 바 있다. 이와 關聯하여 88ㄴ의 <油單>에는 ‘ユタン’이라는 和訓이 提示되어 있으나 87ㄴ의 <油單>에는 和訓이 提示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다.
- 55 調度部 鞍馬具에 提示된 것이다. 術藝部 射芸具에서는 <埵>이라는 標題語가 提示되었다.
- 56 <戈射> (圖 2-88ㄴ / 圖 4-2ㄴ)의 項目 내에서 言及된 바 있다.
- 57 調度部 畋獵具의 例이다. 術藝部 射芸具(圖 19ㄴ[卷4] / 圖 2-94ㄴ / 圖 4-4ㄴ)에서도 標題語로 提示된 바 있으며, 모두 ‘マフシ’의 和訓이 달려 있다.
- 58 <窰> (圖 3-16ㄴ)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漆屋>은 調度部 膠漆具에서 提示되었고 <窰> (圖 76ㄴ[卷11])은 居處部 屋宅類에 나타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同一한 訓(‘ウルシムロ’)이 提示되어 있다.

<蓐>⁵⁹ (名 98ㄴ [卷17])

<真乾> (名 102ㄴ [卷19])

이 중에는 十卷本이나 二十卷本の 다른 標題語의 項目 내에서 다루어진 것이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로 設定되는 경우도 多數 찾아볼 수 있다. 또한 部類를 달리 하여 다시 標題語로 設定된 경우도 있는데, 卷4의 調度部 射芸具에는 이러한 例들이 集中的으로 나타난다. <弓>, <弩>, <角弓>, <彈弓>, <征箭>, <鳴箭>, <平題>, <箆>, <勒> 등은 모두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 調度部 射芸具의 項目으로 새롭게 設定된 것으로 調度部 征戰具에서도 標題語로 提示된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和訓이 그대로 一致하는 樣相을 보이는데 <彈弓>의 경우, 征戰具에서는 和訓이 提示된 것에 비해 射芸具에서는 和訓이 提示되지 않았다.

5. 結論

지금까지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를 十卷本,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比較하여 檢討하였다. 名古屋市博物館本の 標題語들은 十卷本, 二十卷本과 類似한 樣相을 보이기도 하는데 十卷本보다는 二十卷本の 標題語와 一致하는 경우가 다소 優勢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名古屋市博物館本이 二十卷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점과 關聯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으로 名古屋市博物館本은 標題語 提示라는 側面에 있어서 十卷本이나 二十卷本과 다소 다른 樣相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十卷本이나 二十卷本에 비해 漢字語의 意味核을 이루는 部分만을 標題語로 提示하거나 類意 關係의 漢字語를 各各 別途의 標題語로 設定하는 傾向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側面은 名古屋市博物館本이 標題語에 대해 出典과 漢文注를 통한 百科事典의인 情報를 提供하기보다는 標題語-

59 飲食部 園菜類에서 提示된 例이다. 菜羹類(名 94ㄴ [卷16] / 同 4-56ㄴ / 同 16-18ㄴ)에서도 標題語로 設定된 바 있는데, 名古屋市博物館本에서 和訓('ククタチ')은 園菜類에서만 提示되고 菜羹類에서는 提示되지 않았다.

和訓의 세트를 簡潔하게 提示하는 語彙集과 같은 体系를 標榜한다는 점에서 標題語 역시 가능한 한 簡潔한 形態를 취하고자 했던 것이라 解釋해 볼 수 있겠다.

本 研究에서는 十卷本과 二十卷本 各 1種에 대해서만 比較를 試圖하였으나, 그 밖의 다른 異本에서는 標題語들이 어떻게 提示되고 있는지 좀 더 綿密히 살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한편 標題語 提示 樣相뿐만 아니라 和訓 提示의 側面에서도 名古屋市博物館本과 十卷本, 二十卷本の 諸本들을 아울러 比較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名古屋市博物館本の 경우, 十卷本과 二十卷本에서 提示되었던 和訓이 省略되거나 다소 變化되는 樣相을 보이기도 하며, 혹은 十卷本이나 二十卷本에서 提示되지 않은 和訓이 새롭게 提示되기도 한다. 앞으로 名古屋市博物館本과 다른 異本들을 좀 더 綿密히 比較하여 살펴봄으로써 『和名類聚抄』의 諸本들 사이에서 名古屋市博物館本이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는지, 또 나아가 『和名類聚抄』가 어떤 過程을 거쳐 形成되고 傳承되었는지에 대해서도 考察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参考文献＞

- 秋本吉郎 (1950)「和名類聚抄二十巻本の原形」(『国文学 (関西大学)』1)
- 秋本吉郎 (1954)「和名類聚抄二十巻本成立考」(『国語と国文学』31-1)
- 榎英一 (1992)「解説」(名古屋市博物館編『和名類聚抄』, 名古屋市博物館)
- 大槻信 (2002)「古辞書と和訓—新撰字鏡<臨時雑要字>—」(『訓点語と訓点資料』108)
- 大槻信 (2004)「和名類聚抄の和訓—和訓のない項目—」(『国語国文』73-6)
- 川口久雄 (1959)『平安朝日本漢文学史の研究』(明治書院)
- 河野敏宏 (1983)「『和名類聚抄』と『輔仁本草』の関係について」(『岡大國文論稿』11)
- 佐佐木隆 (1983)「国語史からみた『和名類聚抄』—十巻本と二十巻本の先後—」(『国語と国文学』60-7)
- 貞苺伊徳 (1983)「『新撰字鏡』<臨時雑要字>と『漢語抄』」(『国語と国文学』60-1)
- 須賀一好 (1983)「『和名類聚抄』項目配列考—二十巻本先行説を支持する一つの推定—」(『訓点語と訓点資料』69)
- 高橋忠彦・高橋久子 (2006)『日本の古辞書—序文・跋文を読む』(大修館書店)
- 築島裕 (1963)「和名類聚抄の和訓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25)
- 築島裕 (1973)「古辞書における意義分類の基準」(『品詞別日本文法講座10—品詞論の周辺』, 明治書院)
- 西崎亨[編] (1995)『日本古辞書を学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 濱田敦 (1967)「和名類聚抄」(『本邦辞書史論叢』, 三省堂—『日本語の史的研究』, 臨川書店 (1984) 所収)
- 樋野幸男 (1993)「名古屋市博物館本『和名類聚抄』の標出漢字列—および註文の性格 (巻一〜四)」(『国語国文 (東海学園大学)』44)
- 樋野幸男 (1995)「名古屋氏博物館本『和名類聚抄』の傍訓 (上)」(『富山大学教育学部紀要 (文科系)』47)
- 不破浩子 (1983)「『和名類聚抄』撰述の方針について—順と被斎の立場の相違を問題として—」(『叙説』8)
- 不破浩子 (1991)「『和名類聚抄』の体例に関する一試考—「箋注」本文を対象として—」(『訓点語と訓点資料』86)
- 不破浩子 (1995)「『和名類聚抄』の訂本の位置付け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86)
- 三宅ちぐさ (1983)「『和名類聚抄』における万葉仮名—諸本及びその系統間に見られる使用状

態の違いー」(『国語国文』(東海学園大学) 23)

宮沢俊雅 (1976)「和名類聚抄二十卷本諸本の類別」(『国語と国文学』 53-4)

宮沢俊雅 (1983)「和名類聚抄二十卷本成立の一過程」(『北海大学人文科学論集』 19)

宮沢俊雅 (1991)「和名類聚抄の道円本と十卷本」(『辞書・外国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和泉書院)

宮沢俊雅 (1993)「和名類聚抄二十卷本諸本再考」(『国語研究 (松村明先生喜寿記念)』, 明治書院)

宮沢俊雅 (1998)「和名類聚抄と漢語抄類」(『東京大学国語研究室創立百周年記念国語研究論集』, 汲古書院)

山口角鷹 (1965)「和名抄と漢語抄」(『漢学研究』 複刊 3)

山田健三 (1992)「順<和名>粗描」(『日本語論究 2 古典日本語と辞書』, 和泉書院)

山田健三 (2002)「和名類聚抄の掲出項目」(『訓点語と訓点資料』 108)

山田俊雄 (1978)『日本語と辞書』(中央公論社)

林忠鵬 (2002)『和名類聚抄の文献学的研究』(勉誠出版)

[附記] 본 研究는 松山大学 特別研究助成(平成20年度)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 둔다.